

북스

Books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모델이 된 엘리스 리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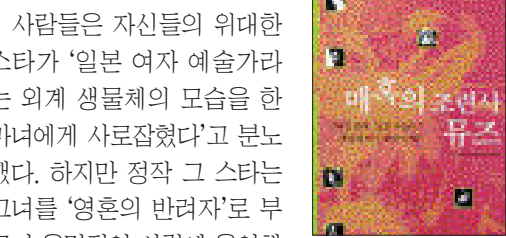
루와 니체<오른쪽>. 그녀가 책을 들고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녀를 바라보는 우리이다.



살바도르 달리와 갈라 달리. 두 사람이 처음 만날때 달리는 그녀가 자신이 꿈꾸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혹의 조련사 뮤즈

프랜신 프레스 지음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스타가 '일본 여자 예술가'라는 외계 생물체의 모습을 한 마녀에게 사로잡혔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정작 그 스타는 그녀를 '영혼의 반려자'로 부르는 운명적인 사랑에 올인했다. 그가 만든 최고의 음악들은 그녀의 존재, 또는 그녀의 부재로 인해 만들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거부어들임으로써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이다.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이야기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뮤즈'는 흔히 '시와 음악의 여신'으로 불리며 현대적 의미의 뮤즈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여성을 말한다.

프랜신 프레스가 쓴 '매혹의 조련사 뮤즈'는 단순히 예술가들에게 미적인 이미지를 제공한 전통적인 뮤즈의 역할을 벗어나 '주체적으로' 예술가를 '탄생시킨' 여섯명의 매혹적인 여성에 대한 보고서다. 저자는 주변 인물들이 남긴 사진과 편지, 일기, 자서전과 예술작품 등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뮤즈들을 재창조했다.

루 찰로메(흔히 루 살로메라고 부름)는 스스로를 진리의 추구자요, 행복과 지혜의 전도사로서 행운의 수혜자에게 관대함과 선행을 베푸는 존재라고 생각

천재의 영감을 깨우는 뮤즈 빛나는 창조자로 거듭나다

'주체적으로' 예술가 탄생시킨 여성 여섯명에 대한 보고서

했고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루의 인생은 뮤즈가 꼭 한 예술가에게만 특별한 화학작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스물두살의 틸케는 서른여섯의 루를 처음 만난 후 '나는 그녀를 통해 세상 보기를 갈망한다'는 연서를 보냈고, 니체는 50년 세월 동안 그녀와 사랑을 이어왔다. 또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그녀의 정신분석학 스승이자 친구로 인연을 맺었다.

루의 한 지인은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다. 그녀의 비범한 집중력은 동반자의 지성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그녀에게 천재를 일깨우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안에서 사람들은 성장을 했다"고 회고했다. 살바도르 달리의 부인인 갈라 달리는 때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달리를 혹독하게 조련시켰다. '나는 무엇보다 당신의 피로 그림을 그렸어'라는 말을 남겼던 달리는 1930년초부터 그림에 자신의 이름과 갈라의 이름을 함께 쓰는 것으로 헌사를 대신했다.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지만 않았지만 말이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탄생시킨 루이스 캐럴의 뮤즈는 자신이 수학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대학 학생의 딸이었던 10살 짜리 꼬마 소녀 엘리스 리델이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자신의 영감은 어떤 화창한 날에 열살 짜리 소녀를 즐겁게 해주려는 욕구에서 나왔다'고 밝혔고 그녀는 70년이 흐른 1932년 루이스 캐럴의 뮤즈였다는 공로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밖에 여러 사진가의 모델이자 뮤즈의 역할을 뛰어넘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군 사진 기자로 활약했던 리 말러, 발레 안무가 조지 발란친의 작품을 이끌어내고 그 성과물을 온몸으로 보여준 발레리나 수잔 패럴 등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푸른숲·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누가, 왜 흠치는가 미술작품 도난사

'도둑맞은 베르메르'



베르메르 전 문가인 일본의 구치 유리코가 쓴 '도둑맞은 베르메르-누가 명화를 흠치는가' (불과 퍼넬)를 보면 명화들을 흠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거나 자기 나라 작품을 되찾겠다는 애국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저자는 가드너 미술관의 도난 사건에서 출발해 추리소설을 풀어나가듯 현장상황과 신문기사, 전문가 소견, 미술품에 대한 각국의 법률체계까지 짚어가며 도난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명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도둑질 대상이 된 명화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범행 동기와 수법, 향후 그림의 행방과 되찾은 사연, 미술품 컬렉터들의 열정 등도 소개해 한 권의 입체적인 '미술품 도난사'를 읽는 것 같다. <놀와·1만3천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화려한 문화유산과 유물은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이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자랑스럽지 않은 것까지 동일한 비중으로 진열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람객들이 알아내기는 쉽지않다.

전시 유물은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그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박제된 문화와 지배집단의 정치관만을 보는 것은 필연이다.

'문화와 정치'는 지식은 물론 지식인조차도 정치적일 수 있다는 현실을 '다양성'으로 수용하면서 문화와 정치의 본질을 읽어내는 복안(複眼)을 제시한다.

저자는 특정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신념과 행위가 그 사회의 대표하는 가치를 결정하고 정책으로 구체

문화와 정치 전경옥 지음

화되는 지, 그 선택과 우열 및 그 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곧 문화와 정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정치를 이해하는데 문화가 중요하고 문화를 아는 데 정치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단정한다.

실제로 지난 1990년에 강조된 '아시아적 가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 채택한 문화정치적 구호다.

한국은 당시 IMF관리 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최대한 부각시켜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복종과 인내를 미화함으로써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음악은 정치적 지배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저항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절대 왕정에서 음악은 왕을 신격화하고 절대자인 신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켰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문화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읽기를 시도한다. 문화 현상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한편, 독자가 행간을 읽는 데 매몰될 즈음 날카로운 비판을 곁들여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1만50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치를 순화시키고 훈탁하게 하는 문화



▲소설 모차르트=모차르트 탄생 250주기를 맞아 그와 관련한 공연과 음반 발매가 잦아지는 가운데 독일 작가 파울 바르츠가 모차르트의 삶을 소설로 풀어냈다. '왕자와 파파게노'에서 방황하는 모차르트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자음과모음·1만 2천700원>

▲여행의 재발견=작가이자 문예창작과 교수인 임동현이 문학을 통해 떠나는 여행을 책으로 펴냈다. 임철우의 '그 섬에 가고 싶다'에 등장하는 완도 보길도를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문학 속 무대를 찾아 팔도 강산을 누빈다. <안그라픽스·1만 3천원>

▲명화와 사진으로 만나는 세계사의 주인공들=모차르트,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등 '귀재' 혹은 '천재'라고 불리는 13명의 세계사의 주인공을 만나본다. 중국의 역사학자 쉬싱화가 그림과 사진을 통해 이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른이침·1만 4천800원>

▲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미국의 역사=저널리스트 질비아 엔글레르트가 카우보이와 코카콜라의 나라 미국에 대해 파헤친다. 담배광고에 카우보이가 나오는 이유 등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다. <웅진·1만2천원>

▲경제학 1교시=경제저널리스트 헨리 해즐릿의 고전이 출간 60주년을 기념해 재출간됐다. 경제학이란 조각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전체를 추적하는 과학이라는 그의 말처럼 FTA, 실업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행간·1만2천원>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미국의 심리학자 베벌리 포터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21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부질없는 근심 걱정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손쉽게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다. <한스미디어·9천500원>

▲죽기전에 가봐야 할 1000곳=여행 칼럼니스트 패트리샤 슬츠가 7년의 공을 들여 완성한 여행 지침서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세계적인 역사 유적, 특급 호텔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외딴섬까지 여행 명소 1천 곳을 소개한다. <이마고·2만3천원>

▲축구는 한국이다=남카로몬 필체로 잘 알려진 강준만 교수가 축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본다. 고대부터 2002년 월드컵까지 시대별로 나눠 한국 축구의 역사를 설명하고 우리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인물과 사상사·9천500원>

▲시랑해=미스터Q'타짜' 등 술한 히트작을 낳았던 명품비의 화제작이 재출간됐다. 34살의 만화가 철수와 20살 영화가 만나 사랑하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아가자기하게 펼쳐진다. 울컥거리고 소박하면서도 깔끔한 그림도 볼거리. <김영사·9천500원>

<p>7월 9일 공무원</p> <p>행정직 100명, 경찰직 100명, 소방직 100명</p> <p>7월 9일 7시 30분</p>	<p>7월 9일 경찰직</p> <p>행정직 100명, 경찰직 100명, 소방직 100명</p> <p>7월 9일 7시 30분</p>	<p>7월 9일 소방직</p> <p>행정직 100명, 경찰직 100명, 소방직 100명</p> <p>7월 9일 7시 30분</p>	<p>7월 9일 공개채용</p> <p>행정직 100명, 경찰직 100명, 소방직 100명</p> <p>7월 9일 7시 30분</p>
<p>전남고시학원</p> <p>www.j2v.net</p> <p>전남고시학원</p> <p>전남고시학원</p> <p>전남고시학원</p>			